

TOGETHER Harim



밴드 웨건 효과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 1922~1994이 1950년에 발표한

네트워크 효과의 일종으로,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樂隊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소비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02	기획포커스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16	신제품 이야기	22	슬기로운 MZ생활
04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17	MZ 생각 MZ리와인드 2025	23	비즈니스 잉글리쉬
06	협력업체 탐방 홍익스텝스	18	하림인 이야기 2025 가장 빛났던 순간	24	눈으로 보는 하림
08	2025 10대 뉴스 하림 뉴스	20	전국 닭 요리 익산-삼삼옷닭	25	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5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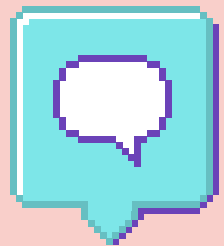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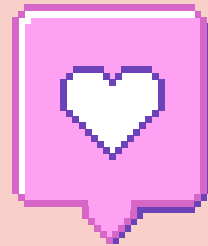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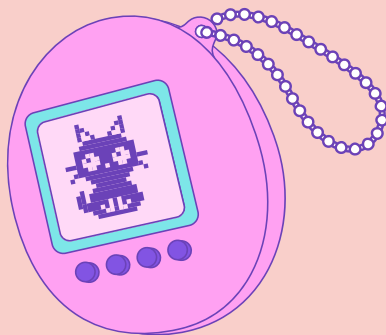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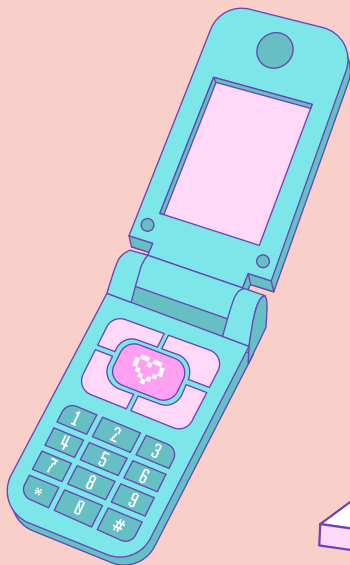
www.har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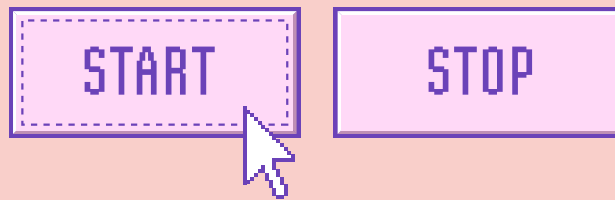
잃어버린 낭만을 찾아서

진짜 낭만을 향한 열망, 트렌드로 이어져



Loading...





낭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를 말한다. 피곤한 세상이니 만큼 ‘낭만’을 입에 올리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 이 ‘낭만’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뭐든 쉽고 빠르게 얻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편리한 초연결시대 뒤에 숨겨진 복잡함, 불확실성 속에서 낭만, 감성, 추억을 찾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상·경제·사회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안정감과 위로를 원하게 됐고, 과거의 기억이나 감성(그때 좋았던 시절)이 소비 욕구로 이어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거나 다른 경험을 찾기도 하면서 과거의 디자인, 패키지, 문화적 코드를 낭만적으로 느끼며 자연스레 트렌드가 형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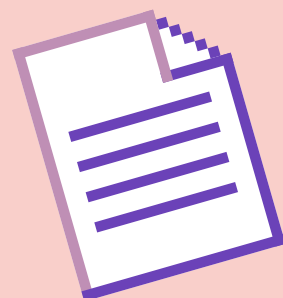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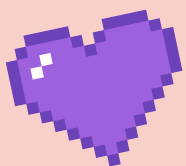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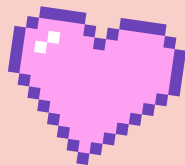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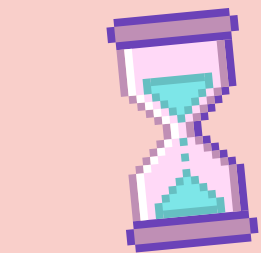
소비자들에게 있어 소비는 ‘무엇을 한다’ 보다 ‘어떤 감정을 준다’가 더 중요해졌다. 기분 좋음과 특별함이 느껴지면 지갑이 열리게 되고, SNS 인증 등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디자인·패키지·브랜드 스토리에 집중한다. 실용성만이 아닌 감정, 스토리, 아이덴티티를 사는 감성소비와 제품을 매개로 느낌이나 이야기를 판매하는 경험형, 스토리형 브랜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바쁘고 빠른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나 정서적 경험을 중시하면서 느낌, 여유, 이야기 있는 장소 같은 정서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프라인 세상에서 직접 체험하며 교감하고 싶어 한다. 단순히 ‘물건 사는 곳’이 아닌 ‘시간 보내는 곳’, ‘느낌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선택한다.

레트로나 복고, 과거의 아이콘을 활용해 소비자의 추억을 자극하는 노스탤지어(추억) 마케팅도 ‘낭만’에 힘입어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중장년에게는 기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낭만과 이야기를 파는 전략이다. 익숙한 브랜드, 내가 아련히 기억하는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 과거의 감성이 맞물리며 코치, 잔스포츠 등 과거 유행했던 복고 브랜드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식품·간식 업계는 과거에 인기 많았던 제품을 재출시하거나 단종된 제품을 다시 선보이고 있다. 단순히 복고풍이라는 틀만 붙여 과거만 내세우면 낡고 오래된 이미지가 될 수 있으므로, 그때 그 감정과 트렌디한 감성을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낭만 찾기’ 움직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소비패턴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며 향수(Nostalgia)가 중요한 감성 코드가 되고 있다. 낭만 트렌드는 지속성은 있지만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진짜 낭만을 향한 열망, 앞으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된다. 올해 당신의 낭만은 무엇이었나? 올해가 가기 전 나만의 낭만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사람은 귀하게, 협력업체는 이롭게”

전북 익산 홍익시스템스

홍익시스템스는 2005년 설립된 근로자 파견 및 업무 도급 전문 기업으로, 하태웅(63) 대표를 필두로 하림의 현수·준비실 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아 만든 사명처럼, 사람 중심의 경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현재 52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29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대표 하태웅



Q. 아웃소싱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동부생명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다 IMF시기에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아웃소싱 업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주 3공단에서 아웃소싱 소장직을 맡으며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호남지사장으로 발탁돼 광주에서 영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하림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하림 본사에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현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회사를 창립해 대기기사 파트부터 본격적인 업무도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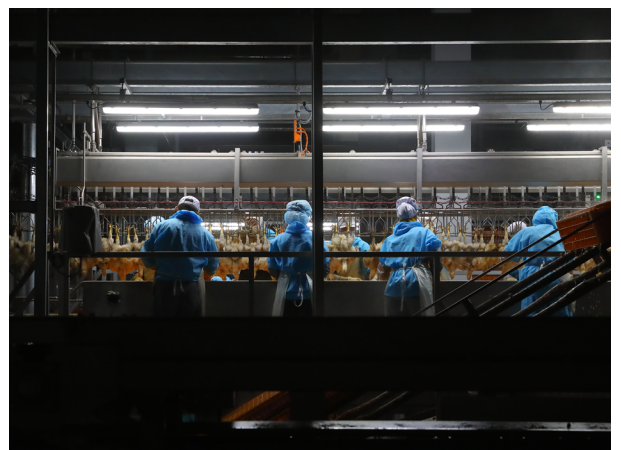
Q. 사업 철학과 차별화된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요?

홍익시스템의 중심 철학은 '홍익인간'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협력업체에 이로움을 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공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고강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직종이기에 중심 철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만큼 차별 없는 문화, 가족 같은 분위기, 서로 밀어주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오면 모두가 함께 챙기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는 번역 앱을 켜고 회의를 하며 소통합니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능한 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덕분에 직원들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Q. 하림과의 인연과 함께하며 느낀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하림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무엇보다 신뢰를 지켜주는 기업입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급비가 제때 나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웃소싱 업계에서 이는 매우 큰 신뢰의 증거입니다. 또 하림의 첫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큰 자부심입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유지되길 바랄 뿐입니다.



Q. 현재 가장 큰 고민과 향후 사업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인력 수급입니다. 현수 공정은 내국인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림은 대기업군으로 분류되면서 국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구하는 것보다 현장에 잘 적응하여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소통·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맡고 있는 육계라인 운영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1~3년 안에는 조직의 안정성·직원 복지·교육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 지속 가능한 도급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회사를 만들 때 '30년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웃소싱 업계는 법인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해주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직원이 확진돼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끝까지 함께 버텨준 것을 잊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제 다짐을 담아 앞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회사', 홍익시스템다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2025 하림의 10대 뉴스

1. 사랑의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분기 1회 정기 헌혈차량 운영)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생명 나눔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시무식'을 시작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헌혈 버스를 지원 받아 분기 별로 헌혈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지난 10여 년 간 임직원들이 기탁한 헌혈증서를 기반으로 사랑의 헌혈증서 500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올해 사랑의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총 770여 명, 헌혈증서가 510여 장 기증됐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 헌혈 참여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며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3. 화제의 용가리인형, SNS 인기 물이!



우리 회사가 지난해 용가리 팝업스토어에서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킨 화제의 용가리 인형을 지난 1월 프레스마켓에 선보였다. 귀여운 소, 중 크기부터 사람 몸집만한 대형 용가리인형, 가방에 귀엽게 달고 다닐 수 있는 키링까지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뜨거운 열기에 지속적인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용가리인형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HCR투어에 참여하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5. 프라임 대리점, 프라임 농장과 함께 동반성장



우리 회사가 상생 경영으로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신선식품본부의 공식대리점 중 최상위 우수대리점 26개를 선정해 운영하는 '프라임 대리점'.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 지난 6월 장기적 동반성장을 위해 차세대 리더 육성 'Prime The Next'를 공식 출범하고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가 프라임 농장 두 군데를 지정하고 수여증과 농장 현판을 전달했다.

프라임 대리점 선정 시 프리미엄존 지원, 이벤트 행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모션 정책 혜택 적용된다. 프라임 농장 선정 시 각종 인종 및 스마트팜 혜택 우선 적용, 프라임 농장 현판 게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우리 회사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며 동반성장을 일궈나갈 예정이다.

2. 노사 공동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17일 쾌적한 작업 환경 정착과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호석 대표이사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10계명'을 선포하고 안전 경영실천을 다짐했다. 우리 회사는 한 해 동안 안전 사고 예방, 근로자 건강 위한 안전문화캠페인 확산 등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4. 한국의 브랜드 파워 냉장·냉동육 부문, 23년 연속 1위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냉장·냉동육 부문 1위를 수상하며 23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우리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올해도 어김 없이 '골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우리 회사는 소비자의 입맛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종합식품기업을 선도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5 하림의 10대 뉴스

6. 지속 경영의 성과와 미래 비전 담은 ESG 보고서 발간 (제 3자 검증 완료)

주식회사 하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4

HARIM
SUSTAINABILITY
REPORT 2024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HARIM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화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의 구체적인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 하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7월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하림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성과를 담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KMAC)의 제 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우리 회사가 투명한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나아가며 지난달 19일 서스틴베스트 '2025 ESG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고, 한국 ESG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사회 부문 A+)을 달성했다.

7.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어 지난 9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 회사는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총 고용 인원은 2,404명으로, 2023년 대비 83명(3.6%) 증가했다.

8. ONE ERP 구축 가동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전사적 자원 관리 체계(ERP) 통합을 목표로 한 ONE ERP 구축 가동을 시작했다. ONE ERP는 신선한 식재료를 최고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 가치 사슬을 통한 관리하고, 계열화된 사업영역을 운영하는 경영철학과 사업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ONE ERP 도입은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따뜻한 손길 이어가



우리 회사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인 사회공헌으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회사는 지역 인재 육성(영·유아 도서 및 장난감 기탁, 초등 장학생 도서 시상, 청소년 문화 탐방, 해외 과학문화 탐방), 생태환경 보존(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보전 활동, 마조마을 1사 1촌), 지역사회 물심양면(삼계탕 나눔 행사,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 지역사회 현물 후원) 등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파할 예정이다.

10. 2025년 HCR Harim Chicken Road 투어 4만 명 달성



하림의 식품 철학과 스토리를 직접 보고 맛보며 즐기는 오감만족 미식여행인 'HCR(Harim Chicken Road) 투어'의 2025년 방문객이 이번 달 기준으로 4만 명을 돌파했다. HCR 투어는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산업관광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매달 3,000~4,000명의 견학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일반인, 기관 등 다양한 계층이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방문하고 있다. 다음 달 누적 견학객 1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HCR투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관광의 메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01

‘한국ESG기준원 사회 A+달성’... 서스틴베스트 ‘AA’ 획득, 국내 양대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국내 대표 평가기관 최고 등급 획득하며 ESG 선도 기업 입증

우리 회사가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평가를 연이어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우리 회사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ESG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KCGS ESG 평가에서도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 전년 대비 향상된 최초의 A+ 등급을 받으며 ESG 경영 우수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ESG 평가 전문가 서스틴베스트는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매년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총 7개 등급(AA, A, BB, B, C, D, E)으로 나뉜다. 하림은 이번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우리 회사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두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환경(Environmental)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이슈와 연계된 세부 전략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운영, 폐목재를 활용한 열에너지로의 재생사업, 나무 식재 캠페인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환경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Social) 분야에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발전과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계약농가 소득향상 프로그램 운영, 거래처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펀드운영,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 참여, 피오봉사단 활동, 연말연시 희망 나눔 캠페인 등 지역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KCGS 사회 부문 A+ 등급 획득은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의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서는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정보의 투명성, 이사회 구성과 운영 활동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시와 준법경영을 철저히 준수하며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2025년 서스틴베스트 최고 등급(AA) 획득은 물론, KCGS 사회 부문에서 최초로 A+ 등급을 달성하여 국내 양대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림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선도주자로서 투명한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2

전북기계공고와 ‘맞춤형 인재’ 육성 MOU 체결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하림반’ 신설

하림그룹이 전북 익산지역 마이스터고와 손잡고 ‘K-푸드’ 현장을 이끌 맞춤형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14일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현)와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 현장실습, 채용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학일체형’ 모델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지주 유기호 전무 등 그룹 관계자와 전북기계공고 임인현 교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적성 중심’과 ‘현장 맞춤’이다. 하림그룹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통해 ‘(가칭)하림반’을 선발한다. 이들은 단순한 기업 견학 수준을 넘어, 방학 중 2주간 하림의 현장에서 인성 교육, 기업 철학, 식품 이론 및 실습 등 집중적인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양측의 협력은 학생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 ▲직무 적성 기반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사의 산업체 연수 및 기술지도 협력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 교류 등 사실상 ‘교육 공동체’ 수준의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하림지주가 산학협력의 총괄 조정을 맡고, (주)하림과 하림산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현장실습 운영과 직무 멘토링,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 측은 하림그룹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 학생을 추천하고 교육과정에 적극 협력한다. 하림그룹 유기호 전무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본인의 적성을 살려 하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며 실

무형 전문가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임인현 교장은 “지역의 대표 대기업인 하림그룹과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되어 감사드리다”며, “특히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윤리적인 인재’를 강조하는 하림의 행동 원칙은 ‘품격과 열정을 갖춘 창의융복합 기술 인재 육성’이라는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림그룹에 꼭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 현장 적응력이 높은 ‘준비된 인재’를 확보하고,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얻는 대표적인 ‘윈-윈(Win-Win)’ 산학협력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3

‘위기를 기회로’ 2026년 전사 사업계획 워크숍 성료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선제적 대응과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전략 공유



우리 회사는 지난달 26일 충남 보령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2026년 전사 사업계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전략과 전사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호석 대표이사과 각 사업부 주요 리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성과 리뷰 ▲2026년 시장 환경 및 리스크 분석 ▲핵심 전략과 ‘스트레치 골’을 포함한 도전 목표 ▲부문별 KPI와 실행 로드맵 등 내년도 경영의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전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2030 가공 식품기업 세계 10위라는 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조직 문화 및 ERP시스템 안정화, 현장 자동화 등의 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다”며 “2026년은 대내외 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선제적 대응과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탁월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방식을 벗어나 ‘스트레치 골’을 향해 혁신을 멈추지 말고, 목표 달성 후에도 원가 개선과 자동화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리점의 어려움은 회사 책임인 만큼 SCM 기능을 강화하여 공급을 안정화하고, B TO B 역량에 집중해 부위별 밸런스를 개선하고 영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공식품부문도 ‘2026년 가공 시장 재도약의 해’로 삼고 17~21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가공식품부문은 ▲성장 및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부별 핵심 전략 실행 ▲현장 중심 영업력 강화 ▲클레임 저감 혁신 ▲카테고리별 리딩 브랜드 육성 등을 목표로 나아갈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2026년 전략을 기반으로 각 부문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내기자 | 송다윤 대리

04

수능 앞둔 임직원 자녀 64명에게 ‘수능 대박’ 응원 선물 전달

수험생 자녀 지원에 힘쓴 임직원과 가족들 격려

우리 회사가 지난달 10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임직원 자녀 64명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응원 선물 전달은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함께 애쓰는 임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원 선물 세트는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로 세심하게 구성됐다. 시험 당일 유용한 무료 담요와 한팩, 텀블러를 비롯해 컴퓨터 사인펜, 형광펜, 볼펜 등 필기구 세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사탕, 쿠키, 호박엿, 젤리 등 다양한 간식이 포함됐다.

특히 자사 제품인 ‘하림 오!늘 단백질’ 단백질바 4종을 함께 넣어 수험생들의 든든한 영양 보충까지 고려했다.



선물 세트에는 정호석 대표이사의 진심이 담긴 응원 편지도 동봉됐다. 정 대표는 편지를 통해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막바지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시고 신중히 임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하림의 소중한 가족이다. 화이팅!”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회사의 임직원 자녀 수능 응원 프로그램은 2023년 53명, 2024년 44명에 이어 올해 64명까지 3년째 꾸준히 이어지며 가족 친화적 기업 문

화를 실천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임직원 자녀들과 학부모 임직원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이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5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림 방역 현장 점검 주인의식 발휘해 자율 방역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거점 소독 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우리 회사를 방문해 우리 회사의 자체 AI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살피고 민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가금 계열사가 주인의식을 가져 계열 농장을 대상

으로 연중 교육,예찰·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방역과 함께 가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계열농장 방역 교육과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차단 방역 수칙 준수, 농가 방역 시설 운영, 방역 실태 지속 확인 등 밤낮 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06

AI 차단 방역에 사활, 빈틈 없는 방역 총력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청정 농장 사수

우리 회사 사육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사육본부는 AI 및 농가 내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대책의 핵심은 ‘틈새 없는 차단’이다. 우리 회사는 농장에 출입하는



사료차, 생계차, 상차반 차량은 물론 지역 소장의 차량까지 모든 관련 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료차 및 생계차의 경우 ▲1단계 사료공장/도계장 소독 ▲2단계 거점소독시설 소독 ▲3단계 농장 진입 전 자체 소독을 거쳐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매일 농장소독을 실시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 물리적인 차단뿐만 아니라 ‘스마트 방역’ 시스템도 강화했다. 우리 회사는 농장 방문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 관리 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세밀한 사양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방역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수치로 증명된 바 있다. 철저한 관리 덕분에 지난 24-25 특별방역기간 동안 하림 계약 농가 내 고병원성 AI 발병률은 ‘0%’를 기록했다. 이 성과를 이어가 이번 25-26 시즌에도 농가 발병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조현성 사육본부장은 “철저한 차단 방역과 매일 농장 소독은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축 질병으로부터 농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 청정 농장’을 사수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닭고기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내기자 | 강승헌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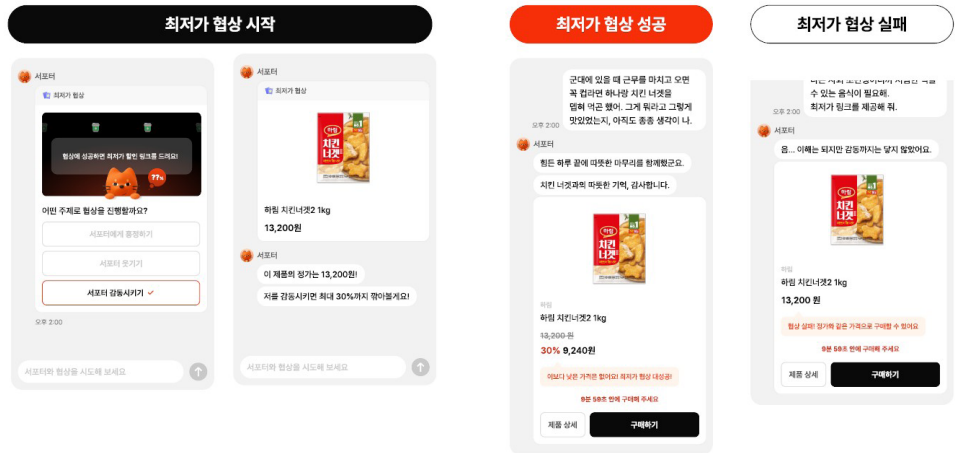
07

온라인팀, 네이버 AI ‘위튼’과 손잡고 대화형 커머스 첫 도입 10일부터 30일까지 AI 협상 기반 프로모션 운영

우리 회사 온라인팀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기반 AI 서비스 ‘위튼(Wrtn)’과 협업하여 AI 대화형 커머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MAU 5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AI 플랫폼과의 공식 협업으로, 자사 제품을 새로운 고객층에 선보이고 AI 기반 커머스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첫 시도다.

위튼의 ‘AI 서포터’ 기능은 고객이



AI와 대화를 나누며 제품을 추천받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근 네이버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규 쇼핑 방식이다.

우리 회사는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협상 과정에 따라 개인별 차등 할인율을 제공하는 참여형 쇼핑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은 AI 서포터와의 대화 후 제공되는 네이버 히트 링크를 통해 자사몰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며, 결제 완료 시 기존 온라인몰과 동일한 절차로 상품이 출고된다

이번 협업에 대해 온라인3팀 박유진 사원은 “AI 커머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대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향후 AI 기반 신규 고객 유입과 자사몰 전환율 증가에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판매 채널 확대와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내기자 | 남다빈 사원

08

가공식품부문, 제1회 ‘PIC 제품 개선 시상’ 실시 임직원 아이디어로 제품 경쟁력 강화 나서

우리 회사 가공식품부문이 지난달 10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회 제품 개선 시상 제도(PIC, Product Improvement Challenge)의 결과를 발표했다.

PIC 제도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필요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PIC 제도를 통해 제품 편의성 개선, 품질 강화, 고객 만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제안들이 접수됐다.

이번 1회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온라인3팀 이새롬



팀장과 고객만족팀 송유리 사원 등 2명, ▲장려상은 고객만족팀 김미영 선임매니저, 고객만족팀 진지혜 사원, 특판군납팀 주명규 팀장 등 3명으로 총 5명의 임직원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PIC 담당자인 Frozen HMRBM 김태훈 대리는 “이번 PIC 제도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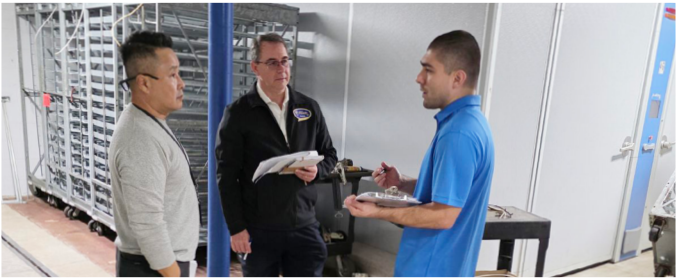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혁신 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부문은 PIC 제도의 정례화를 통해 임직원 참여 기반의 제품 혁신 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내기자 | 남다빈 사원

09

중계부화사업부, '알렌하림'에 K-양계 노하우 전수 중계·부화 전문가 파견해 현장 정밀 진단 및 컨설팅 진행



우리 회사 중계부화사업부는 미국 현지 계열사인 '알렌하림(Allen Harim)'에 본사 핵심 전문가들을 파견해 종계농장 및 부화장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우리 회사가 보유한 선진 사육 기술과 관리 노하우를 해외 사업장에 이식하여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회사 각 분야 베테랑인 최영욱 중계1팀장과 김성현 부화팀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알렌하림과 계약된 종계농장들을 순회하며 계군의 건강 상태, 환기 시스템, 기생충 감염 여부, 백신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농장 내 방역 및 질병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기 설비 점검

을 요청하였다.

이어 진행된 부화장 점검에서는 부화율과 병아리 품질에 직결되는 설비 상태와 부하기 온도 관리 시스템을 정밀 진단했다. 또한, 부화장 내 방역 체계와 위생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며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중계부화사업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본사의 체계적인 사육 및 부화 관리 시스템을 미국 현장에 접목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전반적인 종계 및 종란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욱 중계1팀장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하림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고 상호 평준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내기자 | 강승현 사원

10

'2025 제주올레걷기축제'에 맛있는 닭고기 후원 제품 후원해 부녀회에 함께 특수부위 안주 선보여



우리 회사가 '2025 제주올레걷기축제'에 제품을 후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올레꾼들에게 특별한 닭고기 요리를 선보였다.

'제주올레걷기축제'는 하루 한 코스씩 제주올레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고, 문화·예술 공연과 다채로운 지역 먹거리도 즐길 수 있어 제주도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꼽힌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를 찾고 있으며,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북부에 위치한 올레길 17·18 코스에서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축제의 열기가 한창인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코스 종점인 화북포구에서 화북동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직화 닭목살 구이 매콤한맛'과 '닭발편육' 2종(매콤·갈릭)으로 구성된 특수부위 안주 메뉴 '하림 낭만포차 세트'를 선보였다.

'직화 닭목살 구이 매콤한맛'은 닭 한 마리에서 한 점만 나오는 귀한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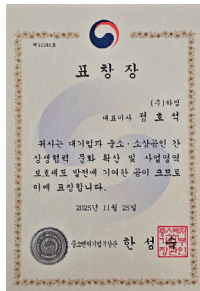
인 목살을 매콤한 특제 양념에 재워 직화로 구워낸 제품이다. 불향 가득한 풍미와 아들아들한 식감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닭발편육'은 신선한 국내산 무뼈 닭발을 편육 형태로 만들어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과 감칠맛이 특징이다. 매콤, 갈릭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두 제품을 활용한 메뉴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마을 발전을 위해 부녀회에 기부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하림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거나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참여할 수 있는 '쿠폰 게임'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하림몰 상품권부터 실용적인 커스텀 굿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신선PM팀 김세희 사원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꼬다꼬다(천천히의 제주 방언)' 걷기 좋은 제주에서 수많은 올레꾼들을 만나, 하림 특수부위의 매력을 전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11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중소기업과 따뜻한 동행 인정받아” 25일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서 사업영역 보호 공로 인정공로 인정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사업영역 보호제도 상생노력 우수 유공’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



사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사업영역 보호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자리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금융 지원과 업계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은 ‘상생펀드’로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총 3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약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지원하며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현재도 1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이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 및 관련 업계와의 동행도 눈에 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23년 계란 도매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약 800만 원의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영세한 유통 중소기업의 ▲사업장 현판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등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쓰였다. 또한, 5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한 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후원하며 유통 종사자들의 화합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12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에 자원봉사 참여... 푸드트럭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ESG 경영 실천 통해 지역 사회와 따뜻한 동행 이어갈 것



우리 회사가 지난달 21일 KBS전주방송총국 시민복지광장에서 열린 ‘2025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에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 임직원 30명이 봉사단으로 참여해 김장김치 담그기 활동에 직접 힘을 보탰다. 하림 봉사단은 전북자치도 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김장김치 총 10톤을 담그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우리 회사는 축제에 참여한 약 400여 명의 봉사자와 관계자들을 위해 하림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푸드트럭에서는 우리 회사의 대표 제품인 용가리 치킨, 도넛치킨 등을 무료로 제공해 추운 날씨 속에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활력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KBS전주방송총국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 회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후원하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영삼 기획조정실장은 “하림이 정성껏 후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라며, “하림은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함께 상생하는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민들의 땀과 도민들의 사랑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진 이 김치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매년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 청소년 문화 탐방 후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NEW!

‘끓이면서 먹는 반조리 냄비요리’ 6종 출시

찜닭, 닭도리탕, 곰도리탕, 두루치기 등 다양



우리 회사가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외식·배달 전문점 수준의 요리가 완성되는 ‘끓이면서 먹는 반조리 냄비요리’ 시리즈를 출시했다.

신제품 ‘냄비요리’ 시리즈 6종은 ‘끓이면서 먹는 반조리’라는 콘셉트에 맞게 최소한의 열처리만 거쳐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리고, 조리 시간까지 고려해 고기와 채소 등 푸짐한 건더기를 생생한 식감으로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유명 맛집이나 배달 전문점 수준의 맛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끓이면서 먹는 반조리 냄비요리’ 시리즈는 ▲찜닭 ▲닭볶음탕 ▲곰도리탕 ▲돼지두루치기 ▲닭두루치기 ▲오리두루치기까지 6종이다. 모두 하림이 엄선한 재료에 특제 양념을 넣고, 최소한만 조리한 뒤 냉동한 제품이다. 해동 후 냄비에 붓고 끓이기만 하면 가정간편식(HMR)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고기의 쫄깃함과 채소의 아삭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찜닭, 닭볶음탕, 곰도리탕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간편식과 달리 순살이 아닌 뼈 있는 닭고기를 사용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요리의 정통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해 집에서든 제대로 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림 ‘끓이면서 먹는 반조리 냄비요리’ 6종은 ‘원팩’ 포장이라 보관과 조리가 간편해 캠핑요리로도 안성맞춤이다. 기호에 따라 다른 부재료나 사리를 추가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간편식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HMR은 멸균 과정에서 과조리, 밀키트는 과도한 포장에 문제였는데,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해 ‘끓이면서 먹는 반조리 냄비요리’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물가 시대에 외식이나 배달 대신 집에서든 맛과 건강,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간편식 라인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색 열풍 따른**‘오!늘단백 초코바 말차맛’ 출시**

MZ세대가 선택한 올해의 맛!

**오!늘단백 초코바 말차맛**

최근 식품업계에서 ‘초록색’이 주목받는 컬러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초록색이 시각적으로 ‘맛있는 색’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지만, SNS에 공유하기 좋은 선명한 색감에 건강한 느낌이 더해지며 MZ세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로 불붙은 ‘피스타치오맛’ 열풍에 이어 말차·메론·와사비 등 초록색을 키워드로 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초록색’을 단순 유행으로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간식으로 의미를 확장해 맛과 기능성 모두를 챙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시한 ‘오!늘단백 초코바’는 ‘밀크초코 피스타치오바’가 큰 사랑을 받으며, 같은 시리즈의 ‘밀크초코 카라멜바’와 함께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우리 회사는 제주산 말차의 달콤쌉쌀한 풍미를 담은 ‘오!늘단백 초코바 밀크초코 제주말차바’를 추가로 선보이며 ‘말차 트렌드’에도 합류했다.

‘오!늘단백 초코바’ 시리즈는 ‘밀가루ZERO’를 내세운 제품으로, 개당 16g의 풍부한 단백질과 7,000mg 이상의 식이섬유를 함유해 죄책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당 함량은 3g으로 낮춰 부담이 없으며, 달콤한 간식과 건강한 식단에 대한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시즌 별 주목 받는 트렌드뿐 아니라 단백질·식이섬유가 포함된 ‘건강한 간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맛과 건강은 물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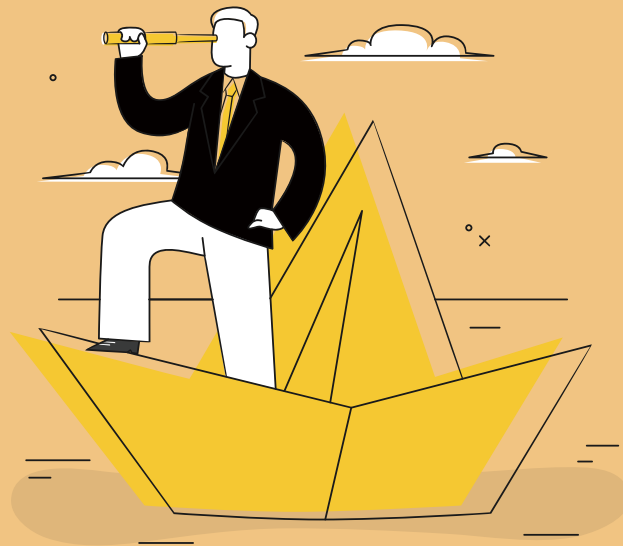
MZ 리와인드 2025

불안을 긍정으로 바꾸고
‘나다움’을 찾는 한 해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본다. “올해 나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친다. 2025년은 불안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등장한 해였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MZ세대는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불안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에 휩쓸리지 않았다. 밀어내기보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방법을 찾아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자신을 다독이며 작은 평온과 만족을 쌓아갔다.

MZ세대는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과거의 ‘갓생’이 완벽함을 강요하며 자신을 몰아세웠다면, 이제는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 속에서 자신만의 만족을 찾는다.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루틴에 집중하며, 그 반복 속에서 스스로의 안정을 되찾는다. 누군가는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잠들기 전 짧은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또 누군가는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인다. 이 일상적인 루틴들은 거대한 성취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을 위로하는 작은 약속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멘탈 웰빙’과 ‘셀프옹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습관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격려를 건네는 그 짧은 순간이, 불안 속에서도 ‘나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 소비의 모습도 달라졌다. MZ세대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을 바꾼다. 어떤 날은 프리미엄 커피나 디저트로 스스로를 보상하고, 또 어떤 날은 가성비 브랜드를 찾아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한다. 이러한 소비 방식은 ‘옴니보어(Omnivore) 소비’라 불린다. ‘옴니보어’는 잡식성을 뜻하는 단어로, 다양한 것을 두루 섭취하듯 필요와 감정에 따라 폭넓게 선택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단순히 절약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춰 균형을 찾아가는 자기 조절의 방식이다. 그들은 무조건 절약하지도, 무조건 소비하지도 않는다. 기분과 상황,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소비의 결을 유연하게 바꾸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본다. 이렇게 ‘옴니보어 소비’는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균형을 지켜가는 새로운 형태의 ‘나다움’이 된다.



더 나아가, 지지하는 가치에 따라 소비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선택을 만들어 가는 흐름도 눈에 띈다. 이를 ‘미닝아웃(Meaning Out)’이라 부른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방향에 맞춰 브랜드를 고르고 제품을 선택한다. 또, 기본 구성에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더해 나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토픽경제(Topping Economy)’도 함께 나타난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향과 신념을 담아 소비하고, 그렇게 소비는 나를 표현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MZ세대는 불안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채워나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조급함 대신 꾸준함을, 비교 대신 균형을 택했다. 불안이 삶을 흔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소소한 루틴과 작은 행복으로 자신을 지탱해 왔다. 불안정한 하루 속에서도 ‘괜찮다’는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곧 2026년이 열린다. MZ세대는 더 이상 불안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과 삶의 일부임을 알기에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간다. 아침의 짧은 호흡, 창문 너머 들어오는 맑은 공기, 오늘을 잘 버텨낸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거창한 목표보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마음이 내일의 희망이 된다. “Anti-Perfect(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 불안정한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믿으며 붉은말의 해 2026년을 따뜻하게 맞이하길 바란다.

홍보팀 하유정 대리

2025 나의 하이라이트 '나를 위한 순간들'

6

이경호 인턴 노사지원팀



안녕하세요! 노사지원팀 신입사원 이경호입니다. 올해 하림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신입 하림인으로서 매일 배우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단연 하림에 입사하게 된 일입니다.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때 연고지가 전라북도인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업은 바로 '하림'이었습니다. 사실 이름은 익숙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HCR 투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가족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길러진 닭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하림의 세심한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 다. 그 순간 '이런 곳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2025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불어온 시원한 여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다소 늦지 않았나"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한창 뜨거운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은 모든 것이 가장 활기차고 성장하는 계절이듯 지금의 저는 열정이 가장 뜨겁고,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림이라는 큰 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처럼 조직에 긍정적인 에너 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주변에 좋은 기운을 전하는 '하림의 여름 바람',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노사지원팀의 일원으로서 '적어도 1인분, 나 아가 2~3인분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신뢰받 는 하림인으로 단단히 자리 잡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윤희상 사원 바이오1팀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1팀의 윤희상 사원입니다. 입사한 지 어느덧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아직은 사회 햇병 아리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닌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강릉, 속초, 경주, 부산, 공주, 대전, 순천, 예산, 목포, 여수, 통영, 거제 등 다 적은 것도 아닌데 새삼 정말 많이 다녔네요 ㅎㅎ

사실 저도 제가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주 여행이었어요. 늦은 시간 이라 문을 연 식당이 거의 없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죠! 그곳에서 처음 들어본 메뉴인 '수구 레 볶음'을 주문했는데 놀라게도 너무 맛있어서 그 순간이 올 한 해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들어간 식당이 맛있거나 무심코 걷다가 멋진 장소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순 간마다 도파민이 샘솟는 것 같아요 😊

되돌아보면 올해는 저에게 정말 '최종우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 가 생기면 그나마 견딜 만한데,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많았죠. 그 과정에서 이겨내느라 애를 좀 먹기도 했지만 돌아켜보면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고 스스로 기특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올해 일렉기타를 배워보고 싶어서 큰맘 먹고 기타를 샀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장식용으로만 두고 있었어 요. 내년에는 조금씩이라도 연습해서 한두 곡 정도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작은 목표로 삼으려 합니다. 일할 땐 최 선을 다하고 놀 땐 제대로 즐기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번 도전해 보겠 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세요!

6

기지연 대리 회계팀



안녕하세요. 회계팀 기지연 대리입니다! 올해 제 하이라이트는 9월에 다녀온 보라카이 여행입니다. 그동안 해외여행은 주로 가까운 일본을 갔었지만 이번엔 조금 더 색다른 곳을 찾아보고 싶어 보라카이를 선택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예쁜 바다와 액티비티, 맛있는 음식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쉬고 재충전할 수 있었어요. 특히 물을 두려워했던 저에게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체험은 큰 도전이었는데요. 처음엔 장비 착용부터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바닷속 풍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거북이를 바로 가까이에서 본 순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곳에 한 번쯤 떠나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약 2년 동안 준비해 온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시스템을 떠나는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새 프로그램은 기능이 더 세분화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SAP 프로그램 도입은 단순한 시스템 변경을 넘어 회사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변화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잘 쉬고, 더 잘 놀러 다니고, 몸과 마음을 더 잘 돌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여유와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6

오윤숙 과장 재정팀



안녕하세요. 재정팀 오윤숙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9월에 친구들과 다녀온 제주도 여행이에요. 그중에서도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명소에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지에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주차하자마자 멀리서 돌고래가 점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또 어찌나 귀엽던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을 도전해야 본대던데 저는 한 번에 봤다는 점! 이런 걸 럭키비키라고 하죠?! 그때 느꼈던 감격스러운 마음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는 하늘 사진을 유독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아래 사진처럼 '내가 날씨 요정이었나?'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하늘과 바다가 너무 예뻐서 휴대폰을 절로 들게 만들더라고요. 다들 제 사진 실력 보고 가세요ㅎㅎ

올해는 긴 것 같으면서도 짧게 지나가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납니다. 취미 생활도 더 즐기고 싶었는데 여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게 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려고 해요. 26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보자!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곳곳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연을 더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어요.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올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하림인 여러분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 바람을 녹이는 보양 한 그릇 익산 '삼삼옷닭'

찬 바람이 불며 뻗속까지 시린 겨울, 문득 뜨끈한 국물이 떠오르는 계절이다. 익산시 망성면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면 소박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토종닭 한 마리를 각종 한약재와 함께 푹 고아 낸 한방옷닭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곳, 바로 '삼삼옷닭'이다.



<대표 메뉴>

- 동의한방옷닭
- 토종닭백숙
- 목은지닭볶음탕
- 동의한방옷오리
- 오리백숙

<정보>

위치: 전북 익산시 망성면 진북로
1348-7
전화번호: 063-861-3396
편의시설 및 서비스: 예약 가능, 매장
앞 주차 가능, 포장 가능





진하게 우려낸 건강의 맛, 동의한방웃닭

웃닭은 주문 후 조리까지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다.

미리 예약하고 도착하면 먼저 정갈하게 차려진 밑반찬들이 식탁을 채운다. 묵은지, 닭날개 튀김, 탕수육, 게 튀김 등 한상 차림이 푸짐하다. 하나같이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입맛을 살짝 깨운다.

웃닭이 나오기 전, 먼저 웃 육수 한 컵이 나온다. 한 모금 들이켜면 속이 뜨끈하게 데워지며 한방 향이 은은히 퍼진다. 여기에 소금을 살짝 더하면 국물의 감칠맛이 한층 살아난다.

곧이어 등장한 웃닭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이다. 큼직한 토종닭 다리를 집어 크게 한입 베어 물면, 부드럽게 찢어지는 살코기와 진한 육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웃 특유의 씩씩한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처음 먹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사장님께 죽을 요청하면 흑미죽이 따로 뚝배기에 담겨 나온다. 흑미 덕분에 일반 죽보다 알알이 살아 있는 식감이 매력적이다. 여기에 밑반찬으로 나온 폭 익은 묵은지 한 점을 올려 먹으면 새로운 밥도둑이 탄생한다.

묵은지의 깊은 맛, 묵은지닭볶음탕

삼삼웃닭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묵은지닭볶음탕으로, 폭 익은 묵은지와 닭, 그리고 부추와 팽이버섯이 보기 좋게 어우러져 있다. 겉쪽만 양념은 보기에 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입맛을 당긴다. 닭고기와 묵은지의 궁합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진다.

삼삼웃닭의 사장님은 “이 집에서 웃에 오른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고 자부심을 보인다. 그만큼 웃의 독성을 잘 잡아낸 손맛이 돋보인다.

가게 내부는 세월이 느껴지는 소품들, 오래된 난로가 놓여 있어 시골집의 따뜻한 정취 또한 느낄 수 있다.

한겨울, 몸보신이 절실히 필요한 날.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온몸이 녹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익산 ‘삼삼웃닭’에서 겨울을 맞이해 보자.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올해의 나, 직장인으로서 성장일기

MZ세대에게 '성장'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나'를 발견하는 거 같아요.

올해를 돌아보며, 회사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순간들을 정리해봤어요.

“아, 나 생각보다 많이 자랐구나” 싶은 그 순간들 :)



1. 작은 루틴이 만든 '꾸준함의 힘'

올해는 '꾸준함'을 제 성장 키워드로 삼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의 할 일'을 메모하는 거예요. 예전엔 일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니까 하루가 훨씬 정돈된 느낌이에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실수도 확 줄었어요. 결국 성장이라는 건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을 쌓는 꾸준함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조용하던 신입, 드디어 입 열기 시작!

입사 초반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가 흐릴까 봐, 회의 때도 대부분 듣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팀의 일과 흐름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제 의견을 한두 번 꺼내봤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될 때의 뿌듯함은 정말 컸어요.

이제는 '조심스러운 신입'에서 '내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구성원'으로 성장 중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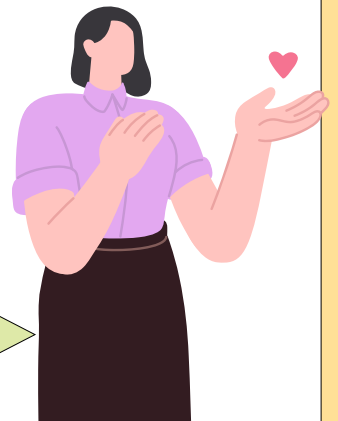
3. 문서 작성에도 나만의 스타일이 생겼다

예전엔 회의록이든 기안문이든, 형식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건 이렇게 써야 하나?”, “이 표현이 맞나?” 싶어서 늘 예시를 찾아봤죠. 그런데 올해는 문서 작업이 꽤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굳이 가이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정리하고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양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쓰는 게 목표가 됐죠.

작년엔 문서 쓰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읽기 쉽게 쓸까?’ 고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작은 성취지만, 문서 하나에도 제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4.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 한 해

올해는 유독 '사람 덕분에 버텼다'는 말이 실감 났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만 주고받던 동료들과, 지금은 일상 얘기나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거든요.

서로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가끔은 웃픈 회사 썰로 공감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 덕분에 일할 때도 훨씬 편하고, 협업도 부드러워졌죠.

이젠 회사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5. 셀프 칭찬으로 레벨업

올해는 누군가의 '잘했어'보다,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예전엔 결과에만 집착했는데, 이제는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해요.

“이번엔 실수했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 훨씬 침착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MZ다운 성장 방식 아닐까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성장'을 중심에 둔 한 해였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연말 마무리 인사 및
감사 표현

<연말 마무리 인사 및 감사 표현 기본 샘플>

Jane : Hey everyone, (A)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this year!

Maria : Thank you too, Jane! (B) It's been great working with you.

Jane : (C) I can't believe how fast this year went by.
We've accomplished so much together.

Tom : Yeah, from the new product launch to the client projects, it's been a busy but rewarding year.

Mark : I've learned a lot from everyone. (D) Thank you all for your support and teamwork.

Jane : I really appreciate everyone's hard work and positive attitude. You all made a big difference.
(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another successful year with this amazing team. Let's make 2026 even better!

제인 : 여러분, 올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 :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 일해서 즐거웠어요.

제인 :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믿기지 않네요.
우리 정말 많은 걸 함께 이뤘어요.

토 : 맞아요. 신제품 출시부터 고객 프로젝트까지,
바쁘지만 보람찬 한 해였죠.

마크 : 모두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도와주신 팀워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인 :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큰 힘이 됐어요.

이 멋진 팀과 함께 또 한 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길
기대합니다. 2026년은 더 멋지게 만들어봐요!

<연말 마무리 인사 및 감사 표현 기본 패턴>

(A),(B),(D) 감사 인사하기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 I really appreciate your hard work.
당신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t's been great working with you.
함께 일해서 즐거웠어요.
- Thank you for being such a great teammate.
멋진 팀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 새해 다짐 및 마무리 멘트

- Looking forward to another successful year!
내년에도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 Let's keep up the great teamwork.
좋은 팀워크를 계속 이어가요.
- Let's celebrate our achievements.
올해 성과를 함께 축하합니다.
- We all deserve a nice break.
우리 모두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요.

(E) 연말 인사하기

- Wishing you a wonderful holiday season.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I hope you have a relaxing end of the year.
편안한 연말 보내세요.
- Let's finish the year on a positive note.
긍정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내기자 | 장민 사원

눈으로 보는 하림

2025년 11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지난달 5일 가공식품부문, 12일 가공공장(정읍)도 수능 앞둔 임직원 자녀를 위해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우리 회사 총무팀 정윤철 사원이 지난달 6일 성실한 소방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익산소방서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6일 35사단에서 우리 회사를 방문해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을 확인했다.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지난달 11일 닭발 품질 개선 TFT Kick off를 앞두고 닭발 관련 지표 설정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박병홍 축평원장, 오시창 전북지원장이 우리 회사를 찾았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18일 합동소방훈련을 갖고 소방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모의훈련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Aviagen 아시아 지부 사장이 우리 회사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HCR투어
신청 하러가기



11월에는 육군수사단과학수사센터, 한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연맹,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전북유통고등학교, 익산문화재단, 세종시가족센터, 익산교육지원청, 전주선화학교, 농아인협회 등 3,300여 명이 방문해주셨습니다. 2025년 많은 분들이 HCR투어를 방문하면서 견학객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도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을 확인하지 못 했다면? HCR투어로 놀러오세요!



똑! 소리 나는 하림 용어 사전

하림,
이름에도 뜻이
있다고요?

닭고기 브랜드 **하림**,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그 이름엔
사실 **자연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림이 꿈꾼 '여름숲'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가장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자"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림의 여름숲 아래에서 그 결실을 온전히 누리고,
그 땀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림은 언제나 곁에서 풍요로운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하림'은
여름 하(夏), 수풀 림(林)

즉, '여름숲'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푸르고 시원한 숲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름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쉬어갈 수 있는
자연의 쉼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림의 여름숲 철학은
지금도 익산 본사 HCR 투어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림의 시원한 여름숲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철학을 HCR투어에서 확인해보세요!

새내기자 | 이민정 대리

이달의 Quiz 퀴즈풀고 선물세트 받자!

닭이 된 나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번호와 선택한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

1. 알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성실한 **'모닝닭'** 🌞 🐔

2. 다섯 번은 미룬다

→ 느긋한 **'구벼닭'** 🌿 🐔

3.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확인

→ 트렌디 **'디지털닭'** 📱 🐔

4. 커피 없인 못 움직임

→ 감성 **'카페닭'** ☕ 🐔

제 234호 당첨자

조*지 논산시 연무읍
양*훈 화성시 병점노을로
윤*근 아산시 탕정면
전*미 군산시 미장안길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